2016년 성탄 제 2강

영원한 왕, 무궁한 나라

말씀 : 누가복음 1:26-56
요절 : 누가복음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선물(膳物)입니다. 아이들은 벌써 부터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6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무궁(無窮)한 메시야 왕국(王國)을 건설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7: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며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신 메시야 왕국은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며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야 왕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 탄생(誕生)에 관한 예고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또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며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Ⅰ. 은혜를 받은 마리아(26-31)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孕胎-아이를 뱀)한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 갔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곳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나사렛 북쪽에는 레바논과 함께 언제나 눈이 덮여 있는 헐몬산(Mt.Hermon-해발 2,814m)이 있고 서쪽에는 푸르고 높은 갈멜산이 있으며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넓은 벌판이 펼쳐 있고 동쪽으로는 멀리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엔 나시라'(En Nasirah)로 부릅니다. 약 2천 년 전 그 옛날 갈릴리 나사렛은 공기 맑고 조용하고 아담한 전형적인 시골 동네였습니다. 동네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집집마다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이른 아침과 서늘한 오후가 되면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새벽이면 닭 우는 소리가 기상나팔과 같이 마을을 울려 퍼지고, 봄이 되면 젊은 처녀들은 들에서 나물을 캐고 젊은 청년들은 양을 치며 풀피리를 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순박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순결을 지키다가 1년 후에 결혼식을 거행하였습

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아름다운 핑크빛 꿈을 간직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몰락한 왕가의 가난한 목수이지만 뼈대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손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진실 되고 인격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요셉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사랑하는 요셉의 얼굴을 안 보고는 못 견딜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페이스북(Facebook)으로 안부를 묻고 댓글을 달며 닭살 사랑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마리아를 생각만 해도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스마트 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 뭐해 나 생각해, 이따 저녁에 붕어빵 사줄게.' 마리아도 요셉을 생각하며 신혼의 꿈을 설계하며 마음이 들떠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싫어, 자기 눈 닮은 황금 잉어 빵 사줘.' 하며 문자와 눈을 찡끗거리는 이모티콘(Emoticon)을 날렸습니다. 요셉과 함께라면 세상에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밤마다 아름다운 꿈의 마차를 탔습니다. 마리아는 이 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바랐습니다. 마리아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의 겨울 조끼를 뜨고 있을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뜻밖의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28).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로 되어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greatly troubled)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요셉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음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30). 이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은혜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는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감사, 친절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물이나 집에 초대를 받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은혜는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값비싼 은혜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류 구속역사에 쓰임 받는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만민 구속역사에 쓰임 받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인류 구속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준비하는 일이라면 마리아는 바로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온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가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다니 마리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어 밥하고 빨래하고 김장철이 되면 김치 담그고 남편 시중들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일생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성모 마리아가 되어 인류의 어머니로 귀히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성모(聖母) 마리아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감당하는 데는 아픔이 따릅니다. 마리아가 성모(聖母)로 택함 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과의 아기자기한 결혼의 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사회에서는 미혼모(未婚母)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아픔, 예수님을 낳고 키우는 아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 등 여러 가지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는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구속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롬9:11,11:5). 하나님은 소망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을 다만 은혜로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막내로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며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은혜로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메시야의 그림자로 귀히 쓰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촌부들을 은혜로 택하사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사도들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니 손해로라!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에 값진 은혜일수록 거기에는 수고도 뒤따르고, 희생도 뒤따르고, 남모르는 아픔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더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목자가 되고, 성경선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려서부터 목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시험 봐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메시야 왕국을 건설하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덧입었다면 우리는 그 메시야 왕국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주의 일꾼들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부담 없는 은혜, 고난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이지, 정말 값진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는 아닙니다. 정말 값지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을 수반하는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혼모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오해(誤解)와 냉대(冷待)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단지 한 남편의 아내로서만 가정에서 오붓하게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가정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만민 구속역사에 귀히 쓰시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28:19,20)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천사는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마1:21).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못 쓰게 만드는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중병(重病)을 앓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의사입니까? 선생입니까?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과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지(天地)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Ⅱ.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32,33)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가 잉태할 아들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2-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첫째로,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32a)

“그가 큰 자가 되고” 본문에서 ‘크다’는 말은 ‘위인(偉人)’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God-man’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本體)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인격과 업적을 보고 위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함에 비할 때 실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논할 때 주 앞에 위대한 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감동 감화 시키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요, 귀신의 세력도 물리치시는 영적세계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광풍(狂風)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의 지배자가 되시고,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빌2:6, 마17:5))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위대성은 엄청난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빌2:7)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 자체가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오셔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압(威壓-위엄이나 큰 힘 따위로 억누르거나 을러댐)하는 큰 자로 오시지 않고 가장 작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저 높은 로마 황궁이 아닌 가장 낮은 마구간(馬廐間-소를 두는 공간. 외양간의 방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데로 오셨습니까? 한 사람의 위대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느냐에 나타납니다. 바다는 모든 강들보다 가장 낮은데 있습니다. 이런 바다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다 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품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욕과 인생의 목마름으로 지쳐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깊은 이기심으로 병든 세리도, 38년을 누워서 허송세월하던 병자도, 성공의 정점에서 인생의 허무에 고뇌하던 니고데모도, 십자가상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흉악무도한 한 강도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품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딱딱한 달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새롭게 태어났고, 그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는 바다와 같은 큰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 갔고 어떤 인간의 불치병이라도 다 치유되었습니다. 문둥병, 중풍병, 장님, 벙어리, 열병, 꼬부라진 허리, 혈루병 등 갖가지 병을 다 고쳐 주셨고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산같이 덤벼드는 파도를 보고 '잠잠 하라.' 하시므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불같이 타올라 도저히 그냥 하늘 보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찾으러 나서신 아버지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품고 섬기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뺨을 맞으시고, 군병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눅23:37)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했지만, 우린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우릴 사랑했지만, 우린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로 그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크신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너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려/ 그 짐을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너를 내 눈동자처럼 보았으며/ 내가 너의 길에 동행하여 항상 살피었노라/ 나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나 너를 인하여 사람이 되었노라/ 너를 징벌하기 싫어 나의 몸에 상처를 내고/ 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노라/ 내 옆구리를 찔렀노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여/ 나의 삶을 버리고 죽었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므로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 동하며/ 내 심령이 타는 불길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둘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32b)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는 오실 메시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지만 근본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본 사람들은 한 결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고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20:28)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휘한 잔인한 로마 군인 백부장도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15:39)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자세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드려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시대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33a)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만 하고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32c)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33a)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왕이심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야이시요, 그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행13:22,36). 권력의 속성에는 한번 권력을 잡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성과 권력을 절대화 시키려고 하는 절대성과 권력이 절대적이 되면 부패하게 되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과 의를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짓누르지 않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심히 기뻐하시고 그의 씨에서 메시야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행13:23, 사11:1).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인생들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세상 왕과 달리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지만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왕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섬기고 위로와 힘과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신 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8:36,37).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오, 사랑과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시오, 사랑과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다윗 왕이라 말합니다. 율법적이고 감정적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공포(恐怖)에 떨며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나타나 공의와 사랑과 평화로 나라를 다스리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폭력을 행하면 그 집안은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 자식들은 감정적인 아버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반발심과 증오심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이해해 주고 사랑과 진리로 다스릴 때 자녀들은 행복을 누리며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사탄이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시기심과 미움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내면

은 참 기쁨과 자유와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섬기시고 나의 허물과 실수, 연약함과 죄 짐을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나 결코 권위를 부리거나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계3:20절은 이를 잘 말해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똑똑'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로,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33b)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33b) 메시야 왕국의 특징은 무궁하다 즉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일시적(一時的)입니다. 한 때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진 대영제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해가 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미국도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급속히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했습니다.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제국 등. 이처럼 세상 나라는 흥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성경은 나라들과 왕국들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왕 등 네 왕 밑에서 총리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변천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단2:31-35) 그 신상을 보니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서 거대한 신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거대한 신상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거대한 신상과 같이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렵게 보이나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세상 나라는 쇠가 녹슬어 부패해지는 것 같이 부패하여 망하고 맙니다. 여기에 세상 왕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며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단2:44, 7:13,14).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市民權)은 하늘에 있습니다(빌3:20).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세계로 옮기셨습니다(골1:13).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연연해하지 아니합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위대한 1:1 말씀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전력투구(全力投球)하며 살고 있습니다.

Ⅲ. 주의 계집종이오니(34-38)

천사로부터 성탄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34)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35)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이성을 초월한 기적으로 신비(神秘)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본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仲保者-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가 되십니다.(딤전2:5) 천사는 계속하여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역사했을 때 잉태하지 못하던 그가 임신하여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36)

가브리엘 천사는 본래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어서 아들을 배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37).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신실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백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다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으니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38) 마리아는 감정적으로 결단하거나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결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결단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 받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평소 마리아의 믿음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평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결단을 독자적으로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더라도 '최소한 요셉의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야 난데…' 하며 요셉의 의견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개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인 계획이나 꿈보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으로 시골 처녀 마리아는 온 인류가 흠모하는 성모(聖母)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秘訣)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I am the Lord's servant)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요 부모의 딸이기 이전에 주의 여종이라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 선생으로, 의사로, 학생으로 여러 위치에서 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되는 신분은 '주의 여종'이라는 자세입니다. 이런 인식을 할 때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성이 유지됩니다. 주의 여종이란 자세를 인식할 때 영적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분명한 정체성과 인식을 갖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이 분명한 종의 자세를 갖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여인들이 정욕과 욕심과 허영을 좇아 살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여인들이 불순종하고 반발적일 때 남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은 그 품안에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을 사모합니다. 우리 7부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마리아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형제 장막을 시작한 것처럼 자매 장막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56절은 마리아의 찬송시(讚頌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야 왕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겸손한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사 만세에 복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캠퍼스 목자요 성경선생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메시야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구속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